완도군, K-해조류로 탄자니아와 협력 길 연다

주한 대사관 사절단, 양식 현장·해양치유 등 견학
선진기술 이전·교류 논의…"관련 산업 육성 최선"

주한 탄자니아 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완도군 해조류 양식장을 방문했다. 사진제공=완도군청

완도군이 해조류를 매개로 아프리카 대륙의 탄자니아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사절단이 완도를 방문,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비롯한 해조류 양식·가공 시설 견학 및 해양치유를 체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완도의 해조류 양식 시스템을 탄자니아 현지에 접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를 위해 추진됐으며,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를 비롯해 존 마스카 경제 보좌관, 드보라 무켄다 홍보 담당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신지면의 해조류 양식장을 둘러보며 다시마, 김, 미역 등 해조류 생산에 이상적인 환경을 확인했고, 완도군청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우호 증진과 수산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우철 군수는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현장을 직접 안내하며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 블루카본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해조류의 가치를 강조했다.

신 군수는 "완도 해조류 양식 환경에 대해 미국 항공우주청을 비롯한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며 "완도가 해조류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토골라니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완도 해조류 산업은 전문성과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다"며 "완도의 양식 기술이 탄자니아에 전수돼 상생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드보라 홍보 담당관은 "해양치유센터에서의 해조류를 활용한 웰빙 프로그램은 신선하고 효과도 놀라웠다"며 "식품을 넘어 확장된 완도의 해조류산업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국내 해조류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로, 지난 2021년 미국 항공우주청(NASA)에서 완도 양식장을 집중 조명한 이후 세계은행(WB), 세계자연기금(WWF) 국제기구 등 각국에서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목포, 글로벌 미래산업도시 전환 '박차'

해상풍력·차세대 조선 등
3대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목포시는 최근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미래산업도시 전환 TF' 운영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목포시청

목포시가 해상풍력·조선해양산업·AI 융합 등을 중심으로 미래도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미래산업도시 전환 TF' 운영결과 보고회를 열고, 3대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과 해상풍력, 조선, AI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시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TF는 '성장구조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산업도시 목포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해상풍력·차세대 조선·미래융합기술 등 3대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력을 마련했다. 여기에 자립형 산업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산업 국가거점 구축, 미래 조선해양산업 메카 조성, AI 융합 미래산업도시 도약 등 3대 전략에 행정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건의 핵심과제와 18건의 연계·확장 과제를 발굴했다.

시는 앞으로 발굴된 이들 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실행력 확보에도 집중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방침이다.

조석훈 권한대행은 "목포시는 도시의 체질 개선과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미래산업도시 전환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TF는 급변하는 정책·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해 약 3개월간 운영됐으며, 해상풍력·조선·AI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목포의 미래 성장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버스 안에서 마음 건강 확인하세요"

진도,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호평

진도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진도읍 LH공공실버주택에서 전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사업에 투입된 '마음안심버스' 내부에는 전문적인 정신건강 검진 기계가 장착돼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계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버스에 탑재된 뇌파, 맥파 측정 장비를 활용해 주민 34명의 스트레스 지수와 혈관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했다.

또 전문 검진 기기를 통한 우울증 검사를 병행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집중했고, 군민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1대 1 맞춤형 상담이 즉석에서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청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이나 연계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졌으며, 자살 예방 운동(캠페인)과 관련 센터의 다양한 지원 내용을 홍보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군민이 소외됨 없이 정서적 안정을 누리는 '생명존중 진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해남, 침수 피해 예방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해남군은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비 13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군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송지 내장지구와 계곡 사정지구에 양수장을 설치하고, 화원 장춘지구 등 4개소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송지 내장지구 양수장 설치 5억4000만원, 계곡 사정지구 양수장 설치 5억원, 화원 장춘지구 배수로 정비 등 4개소 3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농경지 침수 예방과 용수 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남군은 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 위험을 낮추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